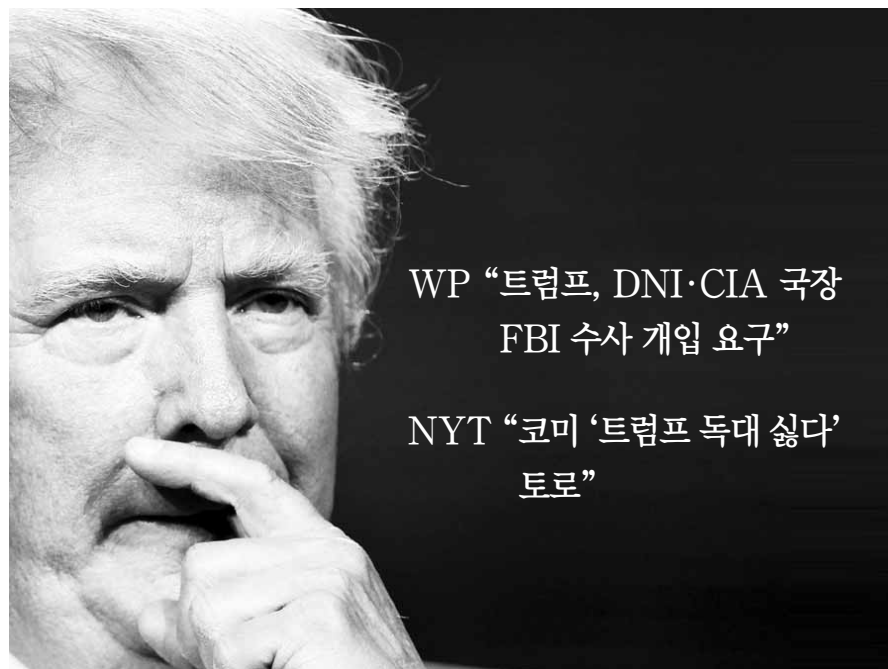


트럼프, 정보 수장들에 “코미 막아라”

〈전 FBI 국장〉

WP, CIA 국장 등과 대화 폭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 개입 요청
코미 청문회 트럼프 운명 좌우



WP “트럼프, DNI·CIA 국장
FBI 수사 개입 요구”

NYT “코미 ‘트럼프 독대 싫다’
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보기관 수장들에게 자신의 최측근을 겨냥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수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6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여러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백악관 브리핑을 마친 뒤 대니얼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만 남기고 다른 참석자들을 전부 내보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FBI 수사와 코미 전 국장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밝혔다.

코츠 국장은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상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대로 코미 전 국장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밝혔다.

WP가 폭로한 비밀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 관료들에게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에 러시아 정부와의 공도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을 넘어 아예 FBI 수사 축소를 요청했다는 의미여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과 정치를 분리한다는 전통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회동 하루 또는 이틀 전에 코츠 국장과의 통화에서 ‘DNI가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캠프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의 존재를 부인하

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코츠 국장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역시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고 WP는 보도했다.

코츠 국장은 7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어서 FBI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코미 전 국장이 8일 상원 정보위 청

문회에 출석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방해 의혹이 급주 미국 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독대를 회피했다는 보도도 나와 관련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현직 사법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은 다음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대통령과 단둘이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세션스 장관이 백악관의 외압으로부터 FBI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믿었으며, FBI 국장과 대통령 사이의 사적인 대화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전달했다. 그러나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의 독대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코미 전 국장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피하려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의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수사 대상인지 물어볼 것으로 예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질문을 요령있게 피할 수 있을지 측근들에게 자문한 적이 있다고 전직 관료들은 전했다.

노트르담 성당 괴한 망치 테러 佛, 국가비상사태 연장 검토

최근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괴한이 경찰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등 새로운 테러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

7일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제라르 콜롬 내무장관은 이날 엘리제 궁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국가안보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와 다른 영구적 안보 조치들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7월 15일 종료되는 국가비상사태를 11월 1일까지 연장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비상사태 아래에서 프랑스 수사당국은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가택 수색, 가택 연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국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테러 업무를 이룰 새로운 태스크포스의 세부 사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엘리제 궁에 배치돼 매일 24시간 가동된다.



총 맞고 쓰러진 괴한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명소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망치를 휘두르다가 경찰의 총에 맞고 쓰러진 한 남성의 모습. 범행 당시 “이것은 시리아를 위해서다”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진 이 괴한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시리아 락카 탈환 개시... ‘민간인 무덤’ 우려

미군을 등에 업은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이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수도’인 시리아 락카 진격을 선언하면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SDF는 이날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IS 격퇴전 공동작전의 하나로 ‘락카 해방전투’ 개시를 선언하고 락카 내부로 진입한다고 밝혔다.

SDF는 지난해 11월 락카 탈환작전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락카 주변의 IS 근거지를 차례로 장악해왔으며, 미군이 제공한 무기·장비를 보강해 이날 락카 진입 작전을 선포한 것이다. SDF는 진격에 앞서 락카 주민들은 IS 세력과 전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IS에 발이 묶여 피란하지 못한 락카 주민·난민이 4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와 인도주의 위기가 우려된다. IS는 민간인 주거지 한 가운데 주둔하는 등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전술을 쓰고 있다. 구호단체 ‘국제구호위원회’(IRC)는 락카 내부 민간인 수를 20만 명으로 집계했다.

시리아와 IS의 또 다른 핵심 근거지인 인구 20만명의 이라크 도시 모술에서는 연합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이미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민간인 피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최근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2014년 8월 시작된 연합군의 IS 격퇴전 공격에 따른 민간인 사망자가 지난 4월 말까지 4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초까지 누계는 199명으로, 전체 민



간인 사망자의 60%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3개월 동안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군이 조사, 확인한 사례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실제 민간인 사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에 있는 감시기구인 ‘에어워스’는 연합군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3천800명이 넘는다고 추산했다. 민간인 사망자가 증가하는 IS의 ‘인간 방패’ 전술에도 원인이 있지만, 연합군이 전보다 큰 규모의 폭탄을, 덜 정밀한 방식으로 투하하는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연합군이 기존에 사용했던 탄두보다 정밀성이 떨어지는 500~1000파운드의 폭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격납고 건설

중국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쩌엉사군도)에 대규모 격납고를 짓는 등 군사기지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안보발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거점 3곳을 중심으로 전투기 2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초 이 섬에 네 개의 작은 전초기지를 완공한 후 3개의 큰 기지를 중심으로 육상 기지를 건설 중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중국은 전투기 연대를 최대 3개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민군(民軍) 복합기지 능력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 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 열도 인근까지 지속해서 정찰을 나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중국과 일본이 지난해 9월 해상 충돌을 막기 위한 통신선 설치에 관한 회담을 재개했지만, 진전은 별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과 프랑스의 ‘독무대’나 마찬가지로 북아프리카 지부티에서도 군사기지를 짓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외국 군대에 우호적인 항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해외 군사기지를 확장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 **17억**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법원 경매/공매】

토 지	근 린 시 설
▶ 남구 주월동 백운교차로 인근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토지 124평 감정가 348,000,000	▶ 서구 쌍촌동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무실 8m도로점 토지 168평 건물 86평 감정가 493,000,000 최저가 493,000,000
▶ 남구 화장동 농막마을내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04평 감정가 42,000,000	▶ 남구 서동 도시지역 제2종일반지구지역 토지 79평 건물 115평 감정가 522,000,000 최저가 366,000,000
▶ 해남 황산면 한자리 고천임방조제인근 토지 4545평 감정가 78,000,000 최저가 78,000,000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인근 토지 128평 건물 251평 감정가 885,000,000 최저가 619,000,000
▶ 나주 남평읍 교촌리 도시지역 생산녹지 대로점 토지 1182평 감정가 715,000,000 최저가 501,000,000	▶ 화순 도곡면 천암리 호텔 토지 978평 건물 1295평 감정가 3,787,000,000 최저가 993,000,000
▶ 해남 문내면 학동리 학동저수지인근 대로점 토지 4151평 감정가 407,000,000 최저가 228,000,000	▶ 동구 충장로5가 토지 65평 건물 감정가 436,000,000 최저가 218,000,000
▶ 해남 산이면 대진리 신농마을인근 대로점 토지 6042평 감정가 482,000,000 최저가 337,000,000	
▶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정가 58,000,000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